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0장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10장, 인쇄 132~146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8

> ❓ **하나님을 보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복이 팔복 가운데 왜 하필 이 자리에 오는지 묻는다. 팔복의 순서를 보면, 마음의 청결은 애통과 짝을 이룬다. 이어 '마음'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복음은 머리나 겉의 행위가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다루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 다음으로 '청결'의 두 뜻을 풀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엄숙한 결론을 끌어낸다.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차 얼굴을 마주하여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은 수도원식 자기 정화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 안에서 힘써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 절별 정리

📜 1. 왜 이 복이 여기에 오는가 — 팔복의 구조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5:8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로 보고, 경외심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복을 다른 복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 나름의 순서 관념을 성경에 덧씌우면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하나의 가능한 분석으로 제안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모든 종교의 궁극 목표인데도 처음이나 끝, 정중앙에

채우신다는 선언이다. 뒤의 세 복(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은 채워진 결과다. 산을 한쪽으로 올라 정상(6절)에 서고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다. 더 나아가 앞뒤 세 복은 짝을 이룬다. 긍휼은 심령의 가난과, 마음의 청결은 애통과, 화평은 온유와 이어진다.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깨끗한 마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강조되는 것은 약속보다 '청결한 마음' 자체다.

1. 순서 분석은 유익하지만 우리 틀을 덧씌우면 위험하다
2. 5:6이 분수선: 필요 → 채움 → 결과
3. 긍휼↔심령의 가난, 청결↔애통, 화평↔온유
4. 마음이 더럽다고 애통하는 사람만 깨끗해진다
5. 이 자리의 강조점은 약속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 **마태복음 5:8**
> 설교 본문.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약속
>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6**
> 팔복의 분수선. 필요가 채워지는 중심 선언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4**
> 청결과 짝을 이루는 애통. 청결의 출발점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2. 복음은 '마음'을 다룬다

로이드 존스는 '마음'이라는 말에 복음의 특색이 있다고 본다. 주님은 가르침 내내 마음을 말씀하셨다.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이 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나무랄 데

방향의 잘못으로 경계한다. 하나는 머리만의 신앙이다. 교리와 지적 이해는 절대 중요하지만, 신조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멈추면 교회의 저주거리가 된다. 성경 해석 기술에만 관심 두는 사람도 학술적인 신학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다른 하나는 행위만의 신앙이다. “교리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외적 품행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이며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품은 전인(全人)이다.

1. 주님은 늘 겉보다 속, 마음을 말씀하셨다
2. 바리새인: 겉은 흠 없고 속은 탐욕과 악독
3. 교리는 절대 중요하나 지적 동의에 멈추면 위험
4. 행위·윤리만의 기독교도 아니다
5. 성경의 마음 = 지성·의지·감정을 품은 전인

> **누가복음 11:39**
> 겉은 깨끗하나 속엔 탐욕과 악독. 바리새인의 문제
>
>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 **마태복음 22:37**
> 율법의 더 무거운 것, 곧 온 마음의 하나님 사랑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3.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둘째로 본문은 마음이 모든 문제의 중심임을 보여 준다. 주님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로이드 존스는 지난 수백 년의 비극적 오류를 지적한다. 사람의 모든 문제가 환경 탓이니 환경만 바꾸면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 마음의 비열한 욕망을 만난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마음은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지성을 계발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철저한 악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중심에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1. 악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2. 인류는 완전한 환경, 낙원에서 타락했다
3.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4. 교육만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5.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

> **마태복음 15:18**
>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문제의 근원
>
>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마태복음 15:19**
> 악한 생각과 온갖 죄의 목록이 마음에서 나옴
>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 **예레미야 17:9**
>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인간 진단의 기둥
>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교육만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본성상 우리는 청결과 정반대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청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위선이 없고 '성한'(single) 것이다. 산상설교 뒤쪽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씀과 같다. 숨긴 것 없이 열려 있고, 곁눈 팔지 않는 일편단심이다. 그는 시편 86:11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를 청결의 가장 좋은 정의로 든다. 우리의 문제는 나뉜 마음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듯,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쪽이 그것과 싸운다. 둘째는 '정화된, 흠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가장 완전한 표현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죄도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풀면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나뉘지 않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곧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 청결의 첫째 뜻: 위선 없고 성한 마음
2. 문제는 둘로 나뉜 마음이다
3. 둘째 뜻: 정화되어 흠 없는 상태
4. 완전한 정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5.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

> **마태복음 6:22-23**
> 성한 눈. 청결 = 하나로 집중된 마음
>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 **시편 86:11**
>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청결의 최고 정의
>
>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요한계시록 21:27

속된 것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감. 흠 없음의 뜻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14-15

두루마리를 빤 자만 성에 들어감

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22

죄도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 청결의 모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마태복음 22:37

마음·목숨·뜻을 다한 사랑. 청결의 내용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깨끗한 마음은 분할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엄숙한 진술 가운데 하나로 본다. 히브리서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이 있는 이상 그는 거룩에 대한 설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말하는 거룩 자체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거룩하고 깨끗하며 섞이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예의범절이나 도덕, 교리에 대한 지적 관심 정도로 끌어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영적 영역에서는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를 닮은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거할 수 있다.

1. 거룩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2. 그래서 거룩 설교를 반대할 수 없다
3. 예의·도덕·지적 관심으로 격하하면 안 된다
4.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는다
5. 스스로 자격 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어리석음

> **히브리서 12:14**
>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함. 본문과 같은 진술
>
>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요한일서 1:5**
> 하나님은 빛, 어둠이 조금도 없음. 청결이 필요한 이유
>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고린도후서 6:15**
>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음
>
>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 6. '하나님을 본다'는 것 — 지금은 희미하게, 그때는 얼굴로

교부와 초기 신학자들은 영화된 상태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글을 썼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시적인지 순전히 영적인지는 궁극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그는 증거만 제시한다. 모세는 바위틈에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구약의 신현도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한편 주님은 “너희가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모습'이 있음을 암시하셨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을 충분히 묘사해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너무 부족하고 깨달음은 유한하다. 확실한 것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 약속도 다른 복처럼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앎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참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얼굴을 마주 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이 영광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음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있는가?

1.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는 답할 수 없는 문제
2.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묘사를 아낀다
3. 약속은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역사·앎·임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
5. 장차 얼굴을 마주하고 그를 닮게 된다

> **출애굽기 33:23**
> 모세는 등만 봄. 육체적 직시는 불가능함을 암시
>
>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 **요한복음 5:37**
>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모습'이 있음을 암시
>
>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요한복음 6:46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가장 신비한 진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히브리서 11:27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지금의 부분적 성취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린도전서 13:12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그때는 얼굴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3:2

그를 그대로 보고 그를 닮게 됨. 최종 성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골로새서 3:2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7.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마지막 질문은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다. 첫째 견해는 수도원주의다. 세상과 결별하고 청결을 '전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철저히 비성경적이라고 짧게 잘라 말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다. 평생 애써도 마음은 처음처럼 검거나 더 검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마음이 검다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는 조셉 하트의 찬송도 함께 부르자고 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이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실 때 마음이 깨끗해진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는 바울의 확신이 로이드 존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분도 가까이하신다. 그러니 손을 깨끗이 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셔야 함을 아는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시간은 짧고, 왕을 뵐 날이 가깝다.

1. 수도원식 자기 정화는 비성경적이다
2. 혼자 애쓰면 마음은 더 검어진다
3. 성령의 내주와 역사만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
4. 그러나 수동적일 수 없다: 가까이 가고 죽이라
5. 그분을 볼 소망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동력

> **시편 51:10**
>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
>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 일하시는 주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1:6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심. 성화의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야고보서 4:8

가까이 가라,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책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골로새서 3:5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방해물 제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8:13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일서 3:3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로 선언하신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준다.

마음
성경에서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의지·감정을 모두 품은 인격의 중심, 곧 사람 전체를 말한다.

마음의 청결
위선 없이 하나님께만 향한 '성한' 마음이면서, 죄의 더러움이 씻겨 흠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바리새인
겉의 종교 행위와 율법 조문은 철저했으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던 유대교 종파 사람들이다.

신현(Theophany)
구약에서 하나님 또는 언약의 사자가 사람의 형상 등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다.

영화(榮化)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장차 성도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과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평생의 과정이다.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 금욕하며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신앙 방식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음의 청결은 애통에서 나오는 열매이며, 팔복 순서 속에서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복음은 머리나 겉의 행위가 아니라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다루고, 모든 문제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
- 청결은 나뉘지 않고 흠 없는 마음이며,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 하나님을 보는 약속은 지금 부분적으로, 장차 얼굴을 마주하여 완성된다.
- 마음은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을 뵐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 안에서 힘써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